

영화 '나우 이즈 굿(Now is Good)'
대도시 일상의 탈출과 위안,
브라이턴

서영애 |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youngaiseo@gmail.com)





나우 이즈 굿(2012)
 감독: 올 파커
 출연: 다코타 패닝,
 카야 스코델라리오,
 제러미 어바인,
 올리비아 윌리엄스 등

〈그림 1〉 웨스트 피어가 보이는 해변 풍경



런던에서 브라이턴(Brighton)으로 가는 날, 비가 오락가락 하는 전형적인 영국 날씨였다. 구글 내비게이션은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고 알려주었다.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젊은 건축가가 당일치기로 여행에 동참했다. 그는 주말에 종종 브라이턴으로 자전거 여행을 간다고 했다. 런던에서 하루에 자전거 왕복 여행이 가능한 브라이턴에는 런던의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기차로 출퇴근하며 산다고 했다. 버저스 힐에서 런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그재그로 언덕을 가로지르는 우회로를 택했다. 때마침 내리는 소나기 때문에 근사한 경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언덕을 넘어가자 멀리 바다가 보이며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영국 남부의 휴양 도시 브라이턴. 니스와 같은 프랑스 해변의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마침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파티 복장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지만 6월 말 날씨라고는 느끼기 어려운 세찬 바람이 불었다. 코트를 꺼내 입고 머플러를 두른 채 산책에 나섰다. 황량해 보이는 녹슨 철골 구조물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과 콘크리트로 만든 오래된 운동시설과 벤치들, 거칠고 투박했다. 자갈로 이루어진 해변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을씨년스러웠다(〈그림 1〉 참조).

동행한 건축가는 브라이턴 최고의 맛집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오래된 광장과 가로 사이를 지나 한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레스토랑(Riddle & Finns)은 신선한 해산물을 주 메뉴로 하는 곳이었다. 사전 예약을 받지 않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두 시간 동안 주변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다렸다. 야외 테이블 옆에 있는 클럽에 입장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였지만 여행객에게는 이 모든 풍경이 생경하기만 했다.



브라이턴 위치

영국 최고의 휴양도시, 브라이턴

브라이턴이 작은 어촌에서 영국 최고의 휴양도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런던에서 가까워서 왕실의 휴양지로 사랑받아 온 이유 외에,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 자원, 철도 부설, 그리고 해수욕이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 전략도 도움이 되었다. 휴양도시란 외부 관광객의 방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일반 도시보다 외부 방문객이 많은 도시를 일컫는다. 1640년대까지만 해도 브라이턴은 이스트 서섹스(East Sussex)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타운이었다. 그러나 1703년에 일어난 대형 자연 재해와 어업 쇠퇴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차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730년대에 해수욕이 건강에 이롭다는 리처드 러셀 박사의 논문과 함께 본격적으로 음주와 질병을 치료하는 도시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시인과 소설가들은 브라이턴을 '가장 뛰어난 내과의사(Doctor Brighton, One of the best of Physician)'라고 부르기도 했다.

1760~1770년대에는 프랑스로 여행하는 보트 탑승지와 런던행 도로가 개설되었다. 조지 4세가 왕자 시절에 자주 여가를 보내며 로열 파빌리온을 건설하면서 소박한 어촌이 패셔너블한 휴양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를 더

〈그림 2〉 팰리스 피어



욱 가속화시킨 것은 철도 개설이었다. 1841년 런던에서 브라이턴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당일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1801년에 7천 명이었던 인구가 100년 후인 1901년 1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빅토리아 시대에 그랜드 호텔(1864), 팰리스 피어(1866), 웨스트 피어(1899) 등이 차례로 건설되었다. 두 곳의 피어는 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극장, 놀이기구, 카지노 등 위락 시설을 갖추고 브라이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이 되었다. 웨스트 피어는 1975년에 폐쇄되었다가 2003년에 일어난 화재로 철골 구조물만 남아 있고, 팰리스 피어는 브라이턴 피어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그림 2〉 참조).

‘Now is Good’의 풍경, 영혼의 안식처

영화 ‘Now is Good’에는 브라이턴 해변의 상징인 팰리스 피어와 웨스트 피어 외에도 매혹적인 자연 경관인 세븐 시스터스 공원(Seven Sisters Country Park)이 등장한다. 열일곱 살인 주인공 테사는 말기 혈액암을 앓고 있다. 화학 요법으로 고통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과정을 선택한다.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하면서 나머지 생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친구 조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하기, 물건 훔치기, 생애 처음 섹스하기, 마약하기 등을 시도하며 아버지 속을 썩이며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처를 갖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옆집에 사는 아담과 가까워진다. 시한부 삶을 사는 테사는 시종일관 담담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에서 해변의 상징들과 하얀 절벽의 세븐 시스터스 공원 풍경은 단순한 배경의 의미를 넘어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감정 변화를 투영한다.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아담은 세븐 시스터스 공원으로 테사를 데리고 간다. 장대하게 펼쳐진 순백의 절벽과 바다를 바라

보며 아담은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이고 테사는 죽음을 앞둔 심정을 털어놓는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팰리스 피어가 보이는 해변 풍경 다음으로 두 사람이 평화롭게 해변에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테사는 이를 수 없는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며 가장 바라는 일이 “단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을 멀리서 조망하는 장면에서는 해가 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웨스트 피어가 보인다.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보이는 녹슨 철골 구조물은 오랜 시간 존재 그 자체로 한 장소를 지키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빛을 발한다. 세븐 시스터스 공원은 영화에서 두 번 더 등장한다. 갈등 상태로 세븐 시스터스 공원에 혼자 와 있던 테사를 아담이 찾아온다. 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운 아담과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테사는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가족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눈을 감은 테사는 세븐 시스터스 공원에서 아담과 함께 노을을 맞이하는 환상을 본다. 영화 속 경관은 테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 없는 영혼의 안식처로 이끈다(〈그림 3〉 참조).

실제로 본 세븐 시스터스 공원은 영화에서 본 풍경보다 더 압도적이다. 브라이턴 중심에서 차로 반 시간 달려 도착하니 광활한 들판이 우리를 맞이한다. 소박한 안내 센터가 이곳부터 공원이 시작됨을 알려준다. 하얀 석회질 절벽은 1억 3천만 년 전부터 작은 해조류와 조개껍데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영국 해협을 향해 깎아지른 듯 펼쳐져 있다. 280ha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 가장 높은 절벽은 77m나 된다. 하얀 절벽은 파도로 매년 30~40cm 깎이고 있다. 방문객들이 절벽 가까이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한 인위적인 시설은 없다. 절벽을 따라 갈대밭과 목초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자연스럽게 하얀색 토양이 드러나 있다. 세븐 시스터스 공원의 관리와 운영, 다양한 이벤트 기획은 내셔널 트러스트 활동으로 이루어지

〈그림 3〉 영화의 주인공 테사와 아담



〈그림 4〉 세븐 시스터스



고 있다. 방문자들은 안내센터에서 제공하는 생태, 건강,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내셔널 트러스트는 단순히 경관을 보존하는 일 외에도 방문자들에 대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기후변화와 재해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훼손 과정까지 있는

〈그림 5〉 세븐 시스터스 산책로(위)와 휴식을 취하는 방문객들(아래)



그대로 보존하고,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방문객이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그림 4, 5, 6〉 참조).

도피와 자유, 문화적 다양성의 도시

영국의 근대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은 브라이턴의 풍경을 미지의 흥미로운 장소, 익명의 공간, 자유와 도피의 피난처로 묘사했다. 그는 소설 『Brighton Rock』(1936)에서 “브라이턴이라는 도시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해변으로 미지의 땅 프랑스를 응시하고 있으며,

〈그림 6〉 세븐 시스터스 안내센터 주변



도시의 뒤로는 구릉지와 갯벌, 또 다른 미지의 땅이 펼쳐져 있다”고 특성을 설명한다. 등장인물 중 어린 캄페인 핑키 브라운이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온 곳이 브라이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민으로, 경마나 도박을 하기 위해 브라이턴에 모였다. 특히 소설 속 해안(coast)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한 마음 상태의 상징적 기능을 한다.

그레이엄의 또 다른 소설을 영화화한 ‘The End of the Affair’(1951)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런던에서 브라이턴을 방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 사는 소설가는 고위 관료의 아내와 사랑에 빠진다. 그들은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브라이턴으로 와서 화려한 해변 호텔에 묵고 팰리스 피어의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브라이턴의 자유로운 도시 분위기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IT산업이 자리 잡거나 새로움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 예술 분야의 자양분이 된다. 브라이턴은 1990년대 이후 ‘실리콘 비치’로 불리며 새로운 미디어 기업인이 몰리고 컴퓨터 게임과 소설미디어 분야의 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브라이턴 축제는 에든버러 다음으로 영국에서 큰 축제로, 도시 전체에서 불꽃놀이, 연극, 음악, 시각 예술을 포함하는 공연이 열린다. 특히 ‘대안 문화 축제’로 일컬어지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정기 페스티벌

과 함께 열리고 있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으로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 단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축제다. 또한 브라이턴은 ‘게이의 수도’로도 불린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한 자선단체, 사회적 지원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게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이며, 가장 높은 동성 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상징과 비전

브라이턴 해변 호텔에 머무는 동안 근처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웨스트 피어 주변에 전망대와 새로운 항구 시설이 건설 중이었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는 런던 아이(London Eye)의 설계자 데이비드 마크에 의해 계획되었다. 런던 아이보다 더 높은 138m의 원형 전망대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360° 방향으로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자는 “사람들은 위에서 보는 풍경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며 ‘수직 부두’ 개념을 설명한다. 시행사와 설계자는 브라이턴이 새로운 비전으로 한 계단 더 도약하게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공공기금 대출로 36만

파운드를 마련한 사업 방식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전망대에 올라 브라이턴 해변과 세븐 시스터스 공원의 하얀 절벽을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 체험이 될 것은 분명하다. 오래된 해변 경관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 모던하고 심플한 최적의 디자인 요소다. 그러나 공사장 너머로 보이는, 원형 전망대를 수직 이동시키기 위한 엄청난 높이의 폴은 브라이턴 해변의 수평적인 경관과 충돌하고 있었다.

첫날의 인상과는 달리, 브라이턴은 머무는 동안 점차 편안해지는 도시였다. 오래된 도시 조직을 보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대문화가 누적되는 도시, 브라이턴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막대한 투자와 최첨단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자연유산과 문화자원을 대하는 검박한 태도와 자유로운 문화예술적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일지 모른다. 과연 새로운 실험이 일부 지역 주민의 우려처럼 실패할지, 전통적인 관광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동력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19세기의 위락 시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휴양도시, 브라이턴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풍경일까. 새로운 랜드마크는 2016년 8월 초에 개방되었다(<그림 7> 참조). 🍀

<그림 7> 새로운 랜드마크와 웨스트 피어의 모습



출처: britishairways360.com.